

May 2019

MorningCalm



MorningCalm 05 | MAY 2019

KOREAN AIR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파야스 축제 의상

발렌시아 사람들에게 '파야스 축제' 의상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축제에서 지역의 오랜 전통과 풍습을 돌보이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Style to Burn

For Valencians, dressing for the Fallas isn't just about looking their best. It's also about keeping local traditions and customs front and center during the city's most important festival.



전문점을 운영하는 암파로 파브라의 말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단체에서 여성 참가자 '파에라'와 남성 참가자 '파에로'가 단체를 대표해 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기간에 그들의 역할은 비르헨 광장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상에 꽃을 바치는 '오프렌다' 의식에 참여하는 것. 거의 400개 단체가 이 의식에 참여하고, 수천 명에 이르는 파에라와 파에로가 오프렌다 의식이 진행되는 3월 17일과 18일에 전통 의상을 착용한 채 거리를 행진한다. 오프렌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발렌시아는 화려한 빛깔로 넘쳐난다. 파에라가 입는 전통 드레스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폭이 넓은 꽃무늬 치마와 몸에 꼭 맞는 짧은 상의 보디스, 그리고 의상에 어울리는 신발로 구성된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은 보디스가 뿔뿔하고 소매가 비교적 긴 18세기풍 드레스 혹은 짧은 퍼프소매와 레이스 장식이 특징인 19세기풍 드레스다.

의상 제작자 암파로 파브라가 만든 '파에라 마요르' '파에라 마요르 인판탈'의 '파야스 축제' 의상(왼쪽 페이지), '오프렌다' 의식에 참여한 발렌시아 주민(아래).

Tailor Amparo Fabra with Elena Bolumar Fenollar and Patricia Viroque Casañ, their *falla's* Fallera Mayor Infantil and Fallera Mayor, respectively (opposite). Valencians participate in the *ofrenda* (below).

began to study the costume that a *fallera* had to wear.”

Falleras and *falleros* are members of a *falla*. During the festival, their role is to participate in the *ofrenda*, the offering of flowers to the statue of the Virgin Mary installed in the city's Plaza de la Virgen. With close to 400 *fallas* participating each year, thousands of *falleras* and *falleros* garbed in traditional clothing walk the streets of Valencia on March 17 and 18, the two days of the *ofrenda*.

On those days, Valencia is flush with color. The traditional dress of a *fallera* consists of a wide flowery skirt that ends at the ankles, a bodice and matching shoes. Two designs are prevalent: an 18th-century ensemble with longer sleeves and a 19th-century version with short puff sleeves trimmed with lace. Experts insist on complete conformity with historical norms. Even hairstyles play a role. “Those of us who propose this purity want one bun with 18th-century outfits and three buns with other outfits,” says Victoria Liceras, president of Valencia’s Association of Dress Historians. “If you wear your hair in a style that

매년 3월, 스페인 동부 해안 도시 발렌시아에서는 '파야스 축제'가 진행된다. 며칠간 이어지는 이 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파야스 축제의 주요 볼거리는 스티로폼과 혼용지(混凝紙), 나무로 만든 거대한 인형 '파야'다. 사회 현안을 풍자해 만든 인형들은 축제 기간 도심 곳곳에 전시되다가, 마지막 날 최우수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운다. 인형은 역시 '파야'라고 부르는 여러 시 단체에서 주문 제작한다. '파야'는 발렌시아어로 '불'을 의미하는데 파야스 축제는 물론 시와 마을의 단체, 인형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로 두루 쓰인다.

파야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축제 기간에 입는 발렌시아 전통 의상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파야스 축제는 1800년대 말 발렌시아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볼 수 있는 축제 의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축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전까지는 축제 의상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어요. 남자는 여자는 그냥 집에 있던 옷을 꺼내 입었는데, 아마도 조부모의 파티 의상이지 않았을까요? 의상 전문가들이 발렌시아의 '파에라'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예요.” 복식사 전문가이자 맞춤옷

Every March, the city of Valencia, Spain, hosts the Fallas, a festival that lasts for several days and attracts more than a million visitors. Included on UNESCO's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centers on *fallas*, elaborate effigies made of Styrofoam, paper-mache and wood that are commissioned by city associations also known as *fallas*. (The word *fallas*, which in Valencian means “fires,” is used to identify the festival itself, the associations and the effigies.) While these effigies, their satirical messages and their burning on March 19 are indisputably the focal point, the traditional clothes Valencians wear during the festivities are just as vital to the spirit of the Fallas.

The current form of the Fallas began in Valencia in the late 1800s, yet the costumes we see today didn't become part of the tradition until the 1980s. “Until then ... both women and men wore what they had in their houses — maybe party clothes that belonged to their grandparents,” says Amparo Fabra, a dress history expert and owner of a tailoring workshop. “It was only in the 1980s that experts



복식 전문가들은 전통 복식 기준을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어스타일도 중요하다. “저처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18세기풍 드레스에는 올림머리가 하나, 그 외 다른 드레스에는 올림머리가 세 개여야 한다고 주장하죠.” 발렌시아 복식 역사가 단체 회장인 빅토리아 리세라스의 말이다. “드레스를 입었던 시절에 유행하지 않던 헤어스타일을 하는 건, 지금 2070년대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남성 참가자인 파예로는 두 종류의 의상 중 하나를 입는다. 일반 노동자인 경우에는 발렌시아 농부들이 오래전부터 입은 무릎 기장의 흰색 반바지인 ‘사라구엘’에 셔츠, 조끼, 넓은 천 허리띠를 착용하고 때로는 군복 스타일의 짧은 재킷을 걸친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구엘 위에 어두운 색상의 반바지를 겹쳐 입는다. 각 단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파예로라면 ‘토렌티 슈트’가 더 적절한 선택이다. 과거 정치인과 귀족이 착용한 토렌티 슈트는 무릎 바로 밑까지 내려오는 통이 좁은 바지, 실크나 양모 소재의 긴 양말, 우아한 버클이 달린 신발로 구성된다. 여기에 셔츠, 조끼, 허리띠를 착용하고 재킷을 걸치기도 한다.

스타일의 완성은 역시 액세서리다. 여자들은 자수를 놓은 허리 앞치마, 어깨에 두르는 레이스 솔 ‘만텔레타’, 올림머리에 꽂는 커다란 장식용 빗 ‘페이네타’, 보디스 브로치 ‘초야’를 착용한다. 남자들은 액세서리가 많지 않은데, 직사각형의 뜨개 담요인 ‘만타’를 어깨에 두르기도 한다. 파예라와 파예로는 모두 오프렌다 의식 중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 파예라는 머리 뒤쪽에 꽂은 페이네타 위로 전통 레이스 머리 덮개인 ‘만티야’를 걸친다. 파예로는 스카프나 모자를 착용한다. 파예라는 여성의 경우, 복장의 시대에 맞는 만티야 없이는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각 단체의 회장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합니다. 의상은 파예라 혹은 파예로가 각 단체에서 맡은 지위에 따라 결정되죠.”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할 의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각 단체의 여왕인 ‘파예라 마요르’다. 파예라 마요르를 뽑는 전통은 1931년 발렌시아시가 초대 ‘파야스 여왕’을 선출하면서 시작됐다. 그 선례를 따라 여러 단체가 자체적으로 여왕을 뽑기 시작했다. “각 단체에서 성인 대표인 파예라 마요르와 어린이 대표인 ‘파예라 마요르 인판틸’을 선정합니다.” 파야스 연구 단체 회원인 하비에르 모사스의 말이다.

발렌시아시를 대표하는 파예라 마요르와 파예라 마요르 인판틸은 보통 전년도 각 단체에서 선정된 이들 중에서 뽑는다. 파예라 마요르나 파예라 마요르 인판틸로 뽑히면 축제 전부터 시작해 축제가 열리는 내내 도시와 자기가 속한 단체의 얼굴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예라와 파예로는 축제 기간에만

hadn't yet appeared during the period of your dress, it'd be as if I were to adopt a 2070s style.”

A *fallero* chooses between two outfits. If he's going as a workingman, he pairs a *saragüell* — white, knee-length, culotte-like shorts Valencian farmers wore for centuries — with a shirt, a vest, a wide fabric belt and, sometimes, a short military-style jacket. For *falleros* who occupy high-level positions in their associations, a *torrentí* suit is more appropriate. It consists of narrow trousers that reach just below the knee, silk or woolen socks that cover the calves, and shoes with an elegant buckle. A shirt, vest, wide belt and, at times, a jacket round out the ensemble.

Accessories complete the look. For women there are embroidered half aprons, *manteletas* (lace shawls), *peinetas* (large decorative combs) and *chollas* (bodice brooches). Men sometimes carry a *manta*, a knitted blanket. During the *ofrenda*, *falleras* wear *mantillas*, lace head coverings. “A woman can't go to an ecclesiastical act without a *mantilla* if she's representing a historical age,” Fabra says. Many *falleros* put on a scarf or a hat. “A president [of a *falla*] must wear a hat. An outfit hinges upon the level of responsibility [of a *fallera* or *fallero*].”

Nowhere is this responsibility — and, as a consequence, the spotlight and obligation to dress the part — as evident as it is in the role of the Fallera Mayor, the queen of each *falla*. The tradition of electing one began when Valencia chose its first Reina de las Fallas, in 1931. The associations followed suit. “In each *falla*, we choose a Fallera Mayor and a Fallera Mayor Infantil, one representing adults and one the children,” says Javier Moza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Fallas Studies.

To be a Fallera Mayor or a Fallera Mayor Infantil is to be the face of the city or your association at events both before and during the festival. If regular *falleras* and *falleros* put on their costumes only during the Fallas, Falleras Mayores begin wearing them months before. For Fabra and other dressmakers, this means orders come in right after the end of the festival. “On March 20, many already order,” says Fabra. “We always ask if [the client] is a Fallera Mayor because then for September she'll need her dresses.”

Fabra has been part of the Fallas dressmaking industry



파예라는 '페이네타'라 불리는 장식용 빗으로 헤어스타일을 완성한다. Decorative combs called *peinetas* adorn *falleras'* hair, which must be in a historically appropriate style.

전통 의상을 착용하지만, 파예라 마요르는 파야스 축제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입기 시작한다. 그래서 파브라를 비롯한 의상 제작자들은 축제가 끝난 직후부터 새 주문을 받는다. “주문을 받으면 고객이 파예라 마요르인지 꼭 확인해요. 파예라 마요르라면 9월까지 드레스가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파브라는 1980년대 초 드레스 제작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 만든 옷은 딸을 위한 파예라 마요르 인판틸의 드레스였다. “옷 만들기와 바느질은 어릴 때부터 제 취미였어요. 수공예, 자수 등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고,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죠.” 그녀는 딸의 드레스를 만든 이후 친구, 가족, 심지어 몇몇 파예라 마요르의 의상을 직접 제작했다. “집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니 한계가 왔어요. 이 일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결국 가게를 차렸고, 3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브라는 지금까지 11명의 파예라 마요르를 위한 의상을 포함해 수많은 파예라와 파예로의 드레스, 사라구엘, 토렌티 슈트를 제작했다. “고되지만, 작업하다 보면 애정과 열의가 생겨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며칠 밤을 새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3대에 걸쳐 그녀에게 옷을 맡기는 고객도 있다. “임신한 고객들은 후에 자신의 아이에게 입힐 드레스를 먼저 주문해 두기도 해요.”

since the early 1980s. She started when she made a dress for her daughter, then a Fallera Mayor Infantil. Afterward, she sewed dresses for friends, family and even a few Falleras Mayores. “Then the moment came when I said to myself, ‘Either I dedicate myself to it or I leave it,’ because I couldn’t expand more in my house,” she says. “I set up a business and I’ve been in this profession for 38 years.”

Fabra has dressed 11 Falleras Mayores of the city and made ensembles for countless *falleras* and *falleros*. “It’s a very trying job, but the truth is that it fills you with love and excitement. When it goes well you don’t mind sacrificing yourself and not sleeping many nights,” she says.

With three generations of clients — “It’s like a chain; clients even advise me when they get pregnant so that we make a dress for the baby” — Fabra’s cuts are recognizable by anyone who owns one of her dresses. But the designs are always reproductions. “In an [old-style] costume one cannot create something new,” Fabra says. “We must reproduce what people wore before.”



파야스 축제 의상은 전통적으로 8세기부터 발렌시아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실크로 만든다(왼쪽 페이지). 실크 두루마리 옆에 전시된 전통 파야스 드레스(위).

Fallas dresses are traditionally made from silk, which has been produced in Valencia since the eighth century (opposite). A historical Fallas dress is displayed alongside rolls of silk (above).

빛나는 시간 파브라의 드레스를 한 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녀가 재단한 옷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디자인은 예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다. “전통 의상에는 새로운 요소를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과거에 입었던 옷을 복제하듯 만들어야 하죠.” 이처럼 발렌시아의 전통을 이어 가려는 노력 덕분에 의상은 여전히 파야스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든 여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가짐과 전통 의상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파야 콘벤토 헤루살렌-마테마티코 마르살’의 2019년 파예라 마요르인 파트리시아 비로스케 카산의 말이다. 같은 단체에서 2019년 파예라 마요르 인판틸로 활동 중인 엘레나 볼루마르 페노야르도 드레스를 입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건 파야스 축제를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정말 명예로운 일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여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예라들은

TIME TO SHINE Keeping Valencia’s customs alive is one of the major reasons clothing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Falla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e traditional outfits — both for women and men — is maintaining the tradition and respect toward our traditional clothing,” says Patricia Virosque Casañ, Fallera Mayor 2019 of the Falla Convento Jerusalén — Matemático Marzal.

Her counterpart agrees. “It’s very emotional to be able to represent your association,” says Elena Bolumar Fenollar, Fallera Mayor Infantil 2019 of the same *falla*. “To shine in your dress is the most beautiful thing for a woman who loves the *fallas*.”

For these *falleras* — as for many other queens of their *fallas* — the road to a perfect dress is both time-consuming and costly. Whereas a regular *fallera* dress is fashioned out of simpler material and can be made for less than €2,000, the cost of a dress for a Fallera Mayor often reaches tens of thousands of euros. That’s because *falleras* representing the city — as well as some *fallas* —




완벽한 드레스를 구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일반적으로 파예라의 드레스는 디자인이 단순하고 구하기 쉬운 직물로 제작되며 가격이 2000유로(한화 약 255만 원) 이하지만, 파예라 마요르의 드레스 가격은 수만 유로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 시나 일부 단체를 대표하는 파예라의 드레스는 꽃무늬가 들어간 실크 소재 '에스폴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발렌시아는 실크의 도시다. 실크 예술 조합의 마리아 루이사 요렌스 푸스테르 박사는 8세기에 아랍인들이 발렌시아에 실크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18세기에는 발렌시아 인구의 절반이 실크 제조업에 종사했다고 해요." 파야스 축제가 처음 열렸을 당시 최초의 파예라가 실크 드레스를 입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가 이미 가지고 있던 드레스였으니까. 오늘날에는 면이나 레이온처럼 대체할 만한 저렴한 소재가 많지만, 실크는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소재다. 발렌시아에서 에스폴린은 최고가 상품이다. 에스폴린은 최대 1만 8000유로(한화 약 2300만 원)까지 낼 의향이 있는 고객의 주문으로 제작되며, 한 명의 장인이 약 700시간 동안 작업해야 완성할 수 있다. "우리는 40가지가 넘는 색상의 에스폴린을 제작하죠." 60년 넘는 세월 동안 영업을 온 직물 제조업체 '비베스 이 마리'의 책임자 후안 비센테 아스나르 솔레르의 말이다.

완성된 에스폴린은 파브라를 비롯한 의상 제작자들의 작업장으로 보내지고, 그때부터 고객의 치수를 재고 여러 장식을 더해 의상을 완성한다. 파브라는 "이 과정에서 모든 요소를 조합하고 액세서리까지 전부 주문한다"고 말한다. 이후로는 일반 고객의 옷이든 특수한 고객의 옷이든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다만 파예라 마요르는 종종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한다. 연중 참여하는 행사의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 대표 파예라 마요르는 드레스를 최고 20벌까지 주문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드레스는 파야스 축제 기간에 발렌시아의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아스나르는 3대째 드레스를 물려주는 사람도 있다고 말한다. 비로스케 카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드레스를 보관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좋은 드레스는 보관만 잘하면 늘 새것 같거든요."

인형을 태우며 축제가 끝난 다음 날인 3월 20일, 발렌시아 사람들은 내년 축제 준비를 시작한다. 수많은 공예 장인들은 자신의 작품이 연기 속에 사라지자마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원단 제작자들은 새로운 색상의 원단을 내놓고, 의상 제작자들은 새로 주문을 받는다. 요렌스 푸스테르 박사는 "전통 의상이 없다면 파야스 축제는 존재 이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며 "축제와 의상은 서로를 더 완벽하게 보완해 준다"고 말했다.  글 마르가리타 고쿤 실버 사진 마리나 스피로네티

make their dresses from *espolín*, the handspun silk cloth named after a small shuttle used to interweave flower designs into fabric.

Valencia is a city of silk. Arabs brought it here in the eighth century, and "by the 18th century almost half the population worked in the silk industry," claims Dr María Luisa Llorens Fuster, secretary of the College of High Silk Art. When the Fallas began, silk outfits were the natural choice of the first *falleras* because of what they, their mothers and their grandmothers already owned.

Although cheaper alternatives such as rayon and cotton exist, silk remains the favorite. And in Valencia, *espolín* is the top of the line. Made to order for those willing to spend up to €18,000, it takes an artisan about 700 hours to make. "We can use more than 40 colors in an *espolín*," says Juan Vicente Aznar Soler, director of Vives y Mari, a fabric manufacturer that has been in business for over 60 years.

Once the *espolín* is made, it's off to the fitting rooms of Fabra or other dressmakers for measurements and to choose all the trappings that make an outfit complete. "We help put everything together — we order all of the accessories," says Fabra. From then on, the process is similar for both the royalty and the regular folk, although Falleras Mayores often have to repeat it. Depending on the number of events she must attend throughout the year, the city's Fallera Mayor could own as many as 20 dresses.

Passed from mothers to daughters, these dresses adorn the streets of Valencia during the Fallas. "I know people who are using [their outfits] in the third generation," says Aznar. Virosque Casañ echoes him: "We preserve the dresses with a lot of care; a good dress is always young if it's kept in good conditions."

On March 20, when Valencia wakes up after the burning of the effigies, the next year of the Fallas begins. Just as the artists whose creations went up in smoke conceive new ideas, so do the fabric manufacturers present new color collections and the dressmakers welcome new orders. "Without the traditional clothing, the festival would lose an important part of its reason to exist," says Llorens Fuster. "They complete each other."

 By Margarita Gokun Silver Photographs by Marina Spironetti



수만 유로에 이르기까지 파야스 드레스는 보통 대대로 물려 입는다. Dresses, which can cost tens of thousands of euros, are often passed down from mothers to daughters.